

# 20년 만에 미국 하원 입성한 한국계 앤디 김 오바마 정부 NSC 몸담은 안보전문가...백인 지역서 막판 역전극

글 이준서 뉴욕 특파원



한인 2세인 앤디 김(36)이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3선거구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김창준(공화) 전 연방하원의원 이후 20년 만에 연방의회에 입성한 한국계 이자, 민주당 소속으로는 미주 한인 역사상 첫 연방하원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어는 서툴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은 이민 2세대다.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그는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동 전문가로 전임 베팅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서 국무부에 첫 발을 디딘 뒤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에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 전문가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IS에 대한 폭격과 인도주의 지원을 담당하는 팀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일찌감치 당선을 기정사실로 한 김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현안에서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로는 군사위원회를 꼽으면서 "국가안보 이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이고, 특히 아시아 및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을 보낸 그는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동 전문가로 전임 베팅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서 국무부에 첫 발을 디딘 뒤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에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 전문가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IS에 대한 폭격과 인도주의 지원을 담당하는 팀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일찌감치 당선을 기정사실로 한 김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현안에서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로는 군사위원회를 꼽으면서 "국가안보 이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이고, 특히 아시아 및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중간선거 당일 공화당 현역 톰 맥 아더 후보에게 밀렸지만, 이튿날 극적인 선거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자체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사실상 '당선인 행보'에 들어갔다. 14일에서야 최종 당선을 확정된 것은 부재자와 임시투표 7천여 표 때문이다. 뉴저지 3선거구는 유권자 65만명 가운데 백인이 85%에 달하는 지역으로, 한국인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북부지역과는 2시간가량 떨어진 전형적인 백인 마을에서 아시아계로서 당당히 워싱턴 정가에 입성한 셈이다. 뉴저지주 지역 언론들도 뉴저지주의 첫 번째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에서 이민 1세대인 부모님에 이어 자신 역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이뤘다는 점을 자부해왔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 김정환(71)씨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쳐 유전공학 박사로서 자리를 잡았다. 가난한 시골에서 성장한 어머니 역시 간호사로서 뉴저지주에서 많은 환자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이민자의 아들,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이 연방의회 선거에 뛰어들어 승리했다"면서 "그 자체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한인 1.5세 김영 씨는 막판 접전 끝에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해 낙선했다.





"남수단 국민을 위한 '리'(고 이태석 신부)의 희생적 삶은 의료와 교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줬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선종한 이태석 신부의 삶이 내년부터 교과서를 통해 남수단 학생들을 찾아간다. 남수단 교육부는 지난 9월 이태석 신부의 삶과 업적을 담은 교과서를 발간했고 이 교과서들을 내년 2월 새 학기에 맞춰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태석 신부를 조명한 내용은 남수단 고등학교 시민생활 교과서에 2페이지에 걸쳐 실렸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3페이지에 걸쳐 다뤘다.

두 교과서는 이태석 신부가 1962년 태어났을 때부터 학창 시절, 남수단에 오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 고인이 청진기를 들고 남수단 어린이들을 진찰하는 장면 등 사진 여러 장을 수록했다. 그가 암 투병 중에도 병상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다.

현지 매체는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교과서에 소개되기는 이 신부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수단 정부가 이 신부가 베푼 사랑을 열

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인종·종교적 분쟁이 남수단 인 약 200만 명을 숨지게 했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들의 고통도 덜어줬다"며 이 신부가 가톨릭 신자,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등을 가리지 않고 치료했다고 칭찬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이 신부가 남수단의 열악한 지역인 톤즈 주민을 위해 헌신했다고 그가 남수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영웅(hero)으로 남아 있다고 적었다.

남수단 교육부는 2015년부터 이 신부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김기춘 남수단 이태석재단 현지이사는 "이태석 신부는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환자들을 돌봤다"며 "우리 근대사에서 이 신부만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사제로 살겠다고 결심해 신학교를 마친 뒤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했다.

이후 2001년 극심한 내전과 빈곤에 시달리던 남수단 톤즈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움막 진료실을 만들어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다. 남수단 교과서는 이 작은 진료실에서 하루에 약 3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신부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35인조 브라스밴드를 만들기도 했다. 톤즈의 유일한 의사였던 이 신부는 현지에서 '쫄리'(John Lee)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2008년 휴가차 한국에 들렀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2010년 48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신부의 삶은 다큐멘터리 '울지 마 톤즈'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남수단은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2013년부터 내전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 “당신은 영웅”...남수단 교과서에 수록된 故 이태석 신부

글 노재현 카이로 특파원

## 첫 'DACA 출신' 로즈 장학생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

글 이준서 뉴욕 특파원

미국의 엘리트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로즈 장학생에 처음으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가 선정됐다. 주인공은 한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박진규 씨로, 하버드대 학부 연구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비즈니스인사이드는 "박씨는 2014년 불법체류 학생들의 대학 등록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하이더 드림스'(Higher Dreams)를 설립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이민, 국제보건과학, 전염병학 등을 공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즈 장학생은 1902년 영국 사업가 세실 로즈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장학프로그램으로, 국제 학문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장학생 출신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3년간 영국 옥스퍼드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총 32명으로, 이중 여학생이 21명이다. 특히 박씨와 같은 이민자 또는 이민 1세대 미국인이 절반을 웃돌았다고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전했다. 듀크·프린스턴·예일 3개 대학에서 각각 3명의 장학생이 나왔다.

장학재단의 엘리트 가문 미국 사무총장은 "미국을 규정하는 특별한 다양성이 이번에도 반영됐



사진 / 하버드대 교지 더드림스 홈페이지 캡처

다"면서 "장학생들은 사회과학, 생물학, 의학, 물리학, 수학, 인문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거슨 사무총장은 특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민자에 적용되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도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反)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